

디자인과 환경미학

Design and Environmental Aesthetics

박연실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Park, Yeon Sill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Dept. of Aesthetics Graduate School of Hong Ik University

• Key words: Deign, Environmental aesthetics, Nature, perception, surrounding, Landscape, Synaesthesia, Ecology, Engagement

1. 서론

환경미학의 뿌리와 배경

환경 미학은 20세기 초기에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세계의 미적 인식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¹⁾에 초점을 둔다. 세계는 대상으로 단순히 구성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환경 단위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환경 미학은 예술작품의 감상과 예술세계의 협소한 정의를 초월하여 확장하며, 자연의 미학²⁾이라는 초기 작업에서 그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환경 미학의 역사적인 뿌리는 18세기 칸트에 의해 고전적 표현이 된 미적 인식에 관한 이념으로서 실천적이고 개별적인 매 일상적인 관심으로부터 거리감 있게 구성된 미적 경험에 의한 ‘무관심성(disinterestness)’의 개념이 있다.

즉 20세기 초 환경미학의 근원들은 칸트의 취미판단을 규정하는 ‘무관심성’과 ‘형식주의’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개되었으니, 첫 번째는 미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옹호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철학적 미학과 예술 세계를 초월한 실제 세계를 내포하며, 그에 따른 배경을 구성하는 데 의의를 둔다.

환경에 관한 미적 특성에는 새로운 대중 의식과 관계하면서 (Blake 11964, Lewis 1973) 두 개의 분파로 나뉘는데, 즉 환경에 미적 언급이라는 관여를 표명함으로써 풍경 건축가들, 조경, 디자인 접근은 과학적 견해에서 감각적이고 또 형식적인 특성들에 일치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편 수많은 개별주의자들은 낡은 패러다임과 풍경 경영의 효용성 양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환경주의자로서 특성화되었다.

이제 환경 미학은 엘리트 철학자의 미적 의식뿐 아니라, 아주 무식한 촌부들의 작은 실천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즉 철학자의 사유와 지리학자의 정의가 만남으로서 칸

트의 ‘무관심성’과 ‘형식주의’의 미적 의식은 지리학자들의 ‘경관(Landscape)’에 의해 밀려나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은 명확한 벌판 패턴들과 농업 실천들, 건축적인 양식들과 정주자들에게 의한 대지의 실천으로 자국난 변화들과 대상들로서 형성된 ‘문화적 경관’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미적인 경관의 개념들은 인간의 자연스런 서식지 안에서 인간의 태도, 의미, 가치, 그리고 감각들에 대한 흔적을 현시하면서 논의하게 되었다. 즉 경관이 ‘그림과 같이 예뻐(picturesque)’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영역이 된 것이다. 경관이란 환경적인 함의는 예술과 지리를 한 점으로 모으며, 실천의 문제와 명확히 만나게 되는 것이다.

2. 환경의 정의

아놀드 벌런트(Arnold Berleant)가 「미학에 대한 도전으로서 환경」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런 주변”(natural surrounding)이다. 주변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로 환경을 고려할진데, 환경은 사람 바깥에 있고, 인간의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용기로 상정한다. 우리가 그런 환경을 객관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독립되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생각하도록 하나의 物理的 實體로 전환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개념적 바탕뿐 아니라, 경험론에 대한 도전으로서 철학적인 이념을 열어놓으며 그 논의를 이어간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환경을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쌍을 포함하는데 동의한다. 그리하여 정신과 육체라는 이중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환경을 멀리서 명상하고, 관계성, 상관성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으로 융해하며, 물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조건의 연속성은 인간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의식을 기술하며, 인간 삶에 내용과 형태를 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적대적인 외부적 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내면적으로 신성한 곳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인식자(마음)는 인식된 자(육체)의 한 국면이라는 것과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인간과 환경이 연속된 것으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이해이다.

이 이해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생태학(ecology)의 연구가 진척되면서부터 미세한 박테리아가 유기체의 전 영역을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지리적인 조건, 동식물의 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학적 사실로의 실증이다. 즉 생태계가 유기체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환경과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3. 지각으로서 환경 미학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사물과 장소, 그리고 사건을 감각적인 직접성과 즉각적인 의미성으로 의식된 육체로 경험하기 때문에 미적인 요소를 갖는다. 지각 환경은 자연 현상의 특별한

1) Allen Carlson, Environmental Aesthetics, The Routledge Companion to Aesthetics, 2001. p.425
2) ① 인간과 외부세계가 분리된 것으로서 로코적인 개념→자연은 정복되기 위하여 존재하며, 자연의 힘은 인간의 목적에 제공하도록 이용되어 왔고, 또 조정아래에 유지되어 왔다. ② 자연이 인간을 포용하는 함의로서 스피노자식 개념→자연은 인간의 활동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그래서 자연은 은혜로운 자로서 고려된다. ③ 미국 원주민들의 애니미즘, 19세기 영국 시인들의 낭만주의, 뉴잉글랜드의 초월주의자들, 점묘파의 풍경에서처럼 자연은 작은 존재로서 인간을 흡수하고, 통합시키고 있다. Arnold Berleant, Environment as a Challenge to Aesthetics, Temple Univ., Press: Philadelphia, 1992 pp. 7-10 정리, 요약.

연구에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실마리로서 순간적인 인식으로 움직인다. 지각 환경(perceiving environment)은 디자인, 건축, 조경, 설계, 생태학에 대한 환경적인 관심의 전 대상을 포함한다.

환경 지각(enviromental perception)은 대상 형식의 전제 조건으로서 감각적인 인식이다. 환경 지각은 대상의 형식으로부터 다른 목적들로 확장될 수 있으며, 목적들 다수는 실질적인 목적과 과학적인 탐구, 사회적인 관심, 경제적인 목표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각적인 질서를 떠나기도 한다.

우리가 환경을 인식할 때 지각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환경과 만난다. 지각의 특성에 대한 심사숙고는 미학에서 중심적인 표지이며, 물리적인 의미로서 지각의식이라는 모체(matrix)의 부분이 감각특성을 받아들이고, 또 동등하게 형태를 주는 통합화된 감각중추(sensorium)가 활동한다. 이 점은 신경증과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경 복합성의 부분으로서 의식적인 육체의 직접적인 참여(engagement)이다. 즉 그것은 환경 미학의 경험적인 장소인 것이다.

환경 지각의 감각적인 범위를 식별하는데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공감각(Synaesthesia)의 인식인데, 그 의미는 지각 양태(modalities)의 퓨전이다. 뛰어난 예술가들과 이론가들 이를테면, 칸단스키, 이텐, 브른슨, 파버 비렌이 논문과 문헌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지각 경로들은 경험에서라기보다는, 명상과 분석, 그리고 실험적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구분된다고 한다. 환경 지각은 그 밖의 다른 상황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능적으로 상호 관계하는 인간의 감각 중추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장소와 육체의 해석을 통해서 환경의 부분이 된 것이다.

중요한 감각 영역은 환경 지각으로 존재하며, 심각한 문제들은 표면 특성과 환경을 일치시킴으로서 결과된다. 그 점에 경험적인 문제들과 철학적인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의 표면, 즉 피부와 만남으로서 환경 경험을 고려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외부적인 현상에 감각적인 투입을 함으로서 만나는 것이다. 현상학이 중요 개념으로서 순수한 감각을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지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 행동적이고 호혜적인 약속이다. 사회적인 경험과 문화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획득한 지각 습관과 믿음 체계들, 삶의 양식, 전통적인 행동과 판단을 통해서 경험에 영향을 준다. 당시 “환경 지각의 설명으로서 표면특성들은 불가피하게 피상적이다.”³⁾ 표면과 깊이 속으로 나뉘어지는 환경의 분할은 이른바 존재론적인 이중성이라는 전체 정렬의 부분으로서 상반되는 양식으로 경험을 분할하는 데, 이를테면 접촉 중추(contact sensorium)와 먼거리 중추(distant sensorium), 정신과

3) Andrew Darley, Visual Digital Culture, Routledge, 2000. 현대 시각 문화의 특성을 간파한 벤야민, 보들리아르, 푸코, 제임슨의 형식이론에는 표면과 피상적인 것에서 매혹과 쾌를 찾는다. 더 이상 이미지에서 상상의 풍부함을 찾지 않는다. 세세한 것의 공간에서 '기술의 친밀성'과 '피상성의 경솔함'을 찾는다. 그리고 이것을 감각의 소멸과 연계시키는데, 즉 표현적인 주관성의 물러나기와 분산이 부수적으로 존재하게 한다. 이것은 디지털 컴퓨터의 테크놀로지적인 '짜집기(pastiche)'와 simulation의 특성이 모니터라는 표면에서 반짝이며, 스쳐 지나가는데서 느껴지는 미술과 환상의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pp. 58-77. 정리

육체, 내면과 외부 세계, 명상과 행위와 같은 이중성이다. 환경 지각은 개념적 일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런 분할을 초월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상태와 통합화된 인간을 연결시킴으로서 연속성의 의미를 향한다.

우리는 색, 텍스처, 형태뿐 아니라, 호흡과 냄새, 피부, 근육 운동과 골격의 위치, 바람과 물, 교통의 소리에 의해서 장소를 파악한다. 환경의 중요한 범위는 — 공간, 부피, 용적, 깊이로서 — 일차적으로 눈과 운동, 그리고 행위 안에서 만난다. 즉 “인간의 환경은 이른바 경험의 정서인 하나의 지각체계이다”⁴⁾.

4. 결론

문화지각인 디자인으로서 환경 미학

강력한 감각 영역은 지각에 있으며, 지각은 감각기관도 생리학도 아니고, 문화적인 영향력과 융합되어 있다. 사실 이 점이 문화적 유기체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감각과 의미의 분리는 현실적 경험이 제공할 수 없는 섬세한 구분의 또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문화의 양식을 통해서 지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디자인과 환경미학의 조우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미적 지각이 순수한 물리적 감각도, 초시간적이고 명확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미적 지각은 늘 맥락적으로, 영향력과 조건의 다양성에 의해서 숙고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이루는 디자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미적 지각과 판단은 불가피하게 문화적이다. 환경이 문화적인 이래로 환경 미학의 논의는 문화 미학(A cultural Aesthetic)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벌런트의 생각이다.

문화 미학의 개념은 우리가 발전시켜 왔던 미적 지각에 관한 이념으로부터 나타나는 상관적인 개념이다. 문화 미학은 사회의 명확한 환경을 구성시키는 지각의 모체(matrix)이다. 문화 미학은 물리적 상들을 문화 미학의 특성적 조립 구조들, 경관의 배치, 감각의 유행하는 특성들, 이해의 형식들을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경험적인 맥락 속으로 융해시킨다. 문화 미학은 어떻게 한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지각하는 가에 대한 방법과 일치한다. 문화 미학은 문화 지리학, 인류학, 디자인 영역과 미학의 협동을 통해서 최고로 수행되는 이상적인 둘 이상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탐구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환경 미학이란 무엇인가? 환경 미학은 환경 안에서 미적 경험이나 가치를 검토한다. 환경 미학은 환경의 이해를 요구하며, 환경의 경험, 미적 차원, 그리고 전개되는 가치의 종류를 요구한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서 가치가 존재하듯이, 미학의 논의에서 함축되어 있다. 가치는 인간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분야로서 경험에서 시작된다. 미적인 환경은 모든 이들의 매체이며, 디자인 예술이며, 인간 삶의 예술이다. 지각 세계는 인간 세계이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들은 세계의 경계선들과 가능성들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지각적 의식을 확장해야 하며, 지각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한 동물들의 명민함을 배워야 한다. 인간의 지각은 기억과 신념, 연상과 융합되며, 이런 범위는 경험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4) Arnold Berleant, The Aesthetic Sense of Environment, Temple Univ. Press. p.20. 인용.